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한국에서의 인사법, 호칭, 식사, 예절 등 한국의 예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회식, 도장 등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생활 문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라는 마음, 금하는 마음

돼지꿈, 합격 기원 찜쌀떡, 엘리베이터에 4층이 없는 것과 같이 생활 속의 바람과 금기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즐기며, 축하하며

한턱내기, 떡 돌리기, 선물 문화 등 자신이 즐거운 일을 맞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축하할 때의 문화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일 년 중 특별한 날

명절 풍습, 한국 공휴일의 의미 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잔치, 군대, 결혼 등 한국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일들의 의미와 문화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말없이 말하기

숫자 세기, 약속하기, 이모티콘 등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몸짓언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생활 속 한국 문화 77 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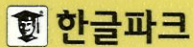
- 이해영** 이화여자대학교 한국학과 교수
- 김은영** 미국 Duke 대학교 강사
- 신경선**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대우전임강사
- 주은경**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대우전임강사
- 이정란**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 이현의**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대우전임강사

Designed by SISA Hanguipark

값 12,000원



9 788955 189421
ISBN 978-89-5518-942-1



(주)한글파크는 한국어교재 출판사이자 전문 서점입니다.

한글파크

생활 속 한국 문화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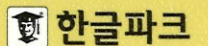
이해영 · 김은영 · 신경선 · 주은경 · 이정란 · 이현의 공저

한글파크

생활 속

한국 문화 77

이해영 · 김은영 · 신경선 · 주은경 · 이정란 · 이현의 공저



주인공 소개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어의 매력에 빠졌고, 지금은 한국에서 대학원에 다니고 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 문화와 일본 문화는 비슷한 점이 많은 만큼 다른 점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나는 한국에서 살면서 알게 된 한국 문화를 일본 사람들에게 알려 주고 싶고 한국 사람들에게도 일본 문화를 알려 주고 싶다.

미국 본사에서 한국 지사로 발령받아 한국에 오게 됐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미국과는 다른 한국에 대해 조금씩 알아 가는 재미에 빠졌다. 아직 한국 문화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때로는 흥미롭고, 때로는 당황스러웠던 한국의 일상 문화를 알려 주고 싶다.



차례

머리말	3
일러두기	4
주인공 소개	6
I 한국에서는 이렇게	10
01 안녕하세요?	12
02 인사는 이렇게	14
03 어디 가세요?	16
04 의사 선생님	18
05 뭐라고 부를까?	20
06 밥 먹을 때는 코를 풀면 안 돼요	22
07 고개를 돌리고 마세요	24
08 어른께는 이렇게	26
09 집 안에서는 신발을 벗어요	28
II 일상생활	30
10 친구끼리는 같이 먹어요	32
11 매운 음식을 잘 먹어요	34
12 한국 젓가락은 무거워요	36
13 체했을 때는 어떻게?	38
14 언제나 어디서나 먹을 수 있어요	40
15 빨리빨리	42
16 빨라요 빨라	44
17 한 개만 더 주세요	46
18 집을 구하세요?	48
19 주소는 넓은 장소부터 써요	50
20 도장 있어요?	52
21 회식하면서 더 가까워져요	54
22 노래방? 만화방? 짬뽕방?	56
23 얼음! 땀!	58
24 아이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놀이를 해 왔어요	60

25 대한민국!	62
26 봄에는 꽃 축제를	64
27 여름을 이기는 팔빙수	66
28 산은 붉고 들은 노랗고 하늘은 파랗고	68
29 화려하고 맛있는 겨울	70

III 바라는 마음, 금하는 마음 72

30 시험에 꼭 붙으세요	74
31 돼지꿈을 꾸면 복권을 사요	76
32 어떤 선물이 좋을까?	78
33 운명을 알 수 있다고요?	80
34 미역국 먹었어?	82
35 어? 4층이 없어요	84
36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안 돼요	86

IV 즐기며 축하하며 88

37 한턱낼게요	90
38 떡 드세요	92
39 이런 날에는 한복을 입어요	94
40 사랑을 고백하는 특별한 날	96
41 재미있는 기념일	98
42 한 해의 마지막 날, 종소리 들으러 가요	100
43 오늘이 100일이예요	102
44 돌에는 금반지를 선물해요	104
45 부자 되세요!	106
46 돈으로 선물해요	108

V 일 년 중 특별한 날 110

47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12
48 명절날 아침 일찍 차례를 지내요	114
49 내 더위 사 가라!	116
50 부처님 오신 날	118
51 오늘은 어린이날, 아이들 세상	120

52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요	122
53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124
54 복날에는 삼계탕을 먹어요	126
55 마음도 음식도 풍성한 추석	128
56 한글을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요?	130
57 일 년 중 밤이 가장 긴 날	132
58 메리 크리스마스!	134
59 오늘은 빨간 날	136

VI 요람에서 무덤까지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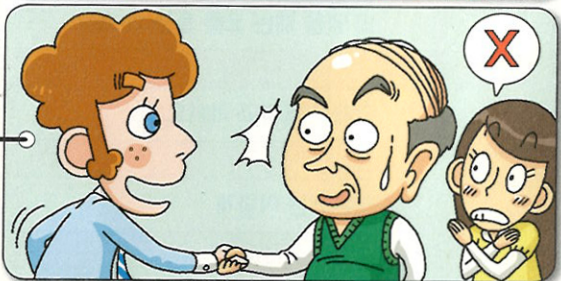
60 삼칠일이 지나야 산모와 아기를 만날 수 있어요	140
61 우리 아기는 커서 뭐가 될까?	142
62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19살	144
63 수능, 고생 끝에 낙	146
64 성인이 되는 날	148
65 잘 다녀오겠습니다, 충성!	150
66 함 사세요!	152
67 결혼식과 폐백 드리기? 그건 뭐지?	154
68 이렇게 결혼해요	156
69 잉어 꿈을 꾸면 아들?	158
70 미역국은 몸에 좋대요	160
71 효도도 하고 여행도 가고	162
72 슬픔을 나눠요	164

VII 말없이 말하기 166

73 숫자를 세어 봅시다	168
74 부를 때와 자신을 가리킬 때	170
75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해요	172
76 손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174
77 이모티콘으로 기분을 표현해요	176

부록	178
----	-----

안녕하세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도 좀 넘었다. 미나 씨 부모님께서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셨다. 처음으로 여자 친구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것이어서 무척 긴장되었다. 옷차림도 신경 쓰고 작은 선물도 준비해 미나 씨 집으로 갔다. 미나 씨 어머니를 **뵙자** 난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어머니를 안고 인사를 했다. 순간 당황해하시는 어머니. 옆에서 웃고 있는 미나 씨. 나는 곧바로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참, 한국에서는 고개 숙여 인사하는 건데……. 얼른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니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다. 잠시 후 퇴근해서 돌아오시는 아버지께는 고개 숙여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드렸다. 아버지께서는 반갑다며 악수를 청하셨다. 내가 한 손을 내밀어 악수하자, 미나 씨는 작은 소리로 말해 줬다. “어른과 악수할 때는 두 손으로 해야 해요.” 첫 만남부터 실수투성이였다. 그렇지만 미나 씨 부모님께서 따뜻하게 맞아 주셔서 내 마음은 편했다. 다음 주 회사에 가서 첫 인사할 때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어휘

- 긴장되다 get nervous, 緊張する, 紧张
- 옷차림 outfit, 服装, 穿着
- 당황하다 be embarrassed, 面食らう, 惊慌
- 고개 숙이다 lower one's head, 頭を下げる, 低下头
- 청하다 extend one's hand, 求める, 请
- 내밀다 reach out, 差し出す, 伸出
- 실수투성이 be full of mistakes, 失敗だらけ, 常失误的人
- 맞아 주다 greet, 迎えてくれる, 迎接

02 인사는 이렇게

▷ 어른을 만나거나 헤어질 때는 어떻게 인사를 할까?



▶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한다.

▷ 친구나 친한 직장 동료와 헤어질 때는 어떻게 인사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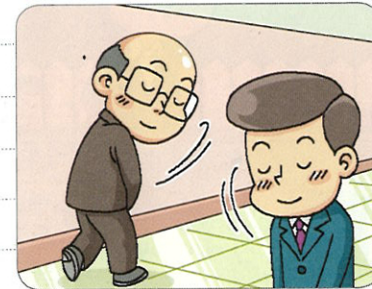
▶ 여자는 보통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고 남자는 손을 들어 인사를 한다.

▷ 어른과 악수를 할 때는 어떻게 할까?



▶ 왼손으로 오른손을 받치고 허리를 굽히면서 악수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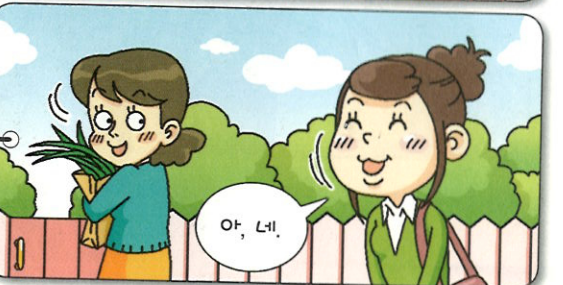
▷ 한 사람을 하루에 여러 번 만나게 될 때는 어떻게 인사할까?



▶ 처음에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고 그 이후에는 가볍게 고개만 숙여 인사를 한다.

03

어디 가세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나는 한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일에 너무 관심이 많다고 생각했다. 나이가 몇 살인지, 결혼을 했는지는 기본이고, 볼 때마다 어디 가는지까지 물어본다. 아침에 나갈 때면 하숙집 아주머니도 “어디 가요?” 하고 물으시고, 학교에서 마주친 친구들도 나를 보면 “어디 가?” 하며 계속 물어봤다. 왜 내가 어디 가는지가 궁금하지? 오늘도 어김없이 한 친구가 또 “어디 가?”라고 묻는다. 그래서 도대체 왜 궁금해 하는지 물어봤다. 그런데 내가 어디 가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란다. 같은 ‘어디 가세요?’라는 말도 억양에 따라 완전히 다른 말이 된다. ‘어디’라는 부분이 강조가 되면 장소를 물어보는 말이지만, ‘가세요’라는 부분이 강조가 되면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그럴 때는 대답할 때도 ‘아, 네.’ 정도로만 말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인사한 것인데, 나는 묻지도 않은 질문에 일일이 대답한 것이었다. 아, 정말 한국어 공부는 끝이 없다.

어휘

- 개인적 personal, 個人的, 个人的
- 기본 basis, 基本, 基本
- 마주치다 come across, 出くわす, 相碰
- 어김없이 without fail, 決まって, 肯定
- 도대체 what on earth, 一体, 到底
- 억양 intonation, イントネーション, 语调
- 강조 emphasis, 強調, 強調
- 일일이 explain in detail, いちいち, 一个一个地

04 의사 선생님



이틀 전부터 아팠던 목이 오늘 아침에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한국에 온 뒤로 병원에 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망설여졌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갔다. 간호사에게 이름, 주소 등을 말하고 내 차례가 오기를 기다렸다. 5분쯤 기다렸을까?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진료실로 들어갔다. 의사는 나를 진찰하더니 목이 많이 부었으니까 주사를 맞으라고 했다. 주사라는 말에 깜짝 놀라 주사 대신 약을 먹겠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런데 의사를 뭐라고 불러야 하지? 한국 드라마에서 보니까 여자들이 남자를 ‘오빠’라고 부르던데 그럼 의사도 ‘오빠’라고 불러야 하나? 아니면 아저씨? 아, ‘님’을 붙여서 부르면 높이는 의미가 있으니까 ‘의사님’으로 부르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나는 “의사님, 주사 맞는 대신 약을 먹으면 안 돼요?” 하고 말했다. 그러자 의사는 재미있다는 듯이 웃더니 알겠다고 했다. 왜 웃었을까? 집에 와서 하숙집 아주머니한테 물어봤다. 의사는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하셨다. 학교 선생님처럼 의사도 선생님이구나. 의사 선생님. 다음에는 그렇게 불러야지.



- 망설이다 hesitate, 迷う, 猶豫
- 차례 turn, 順番, 順序
- 진료실 consultation room, 診療室, 診療室
- 진찰하다 examine, 診察する, 診察
- 붓다 swell, 腫れる, 腫
- 주사를 맞다 get an injection, 注射をしてもらう, 打针

05 뭐라고 부를까?

▶ 결혼한 것처럼 보이는 여자, 남자를 뭐라고 부를까?



▶ 여자는 아주머니, 남자는 아저씨라고 부른다.

자주 가는 식당 아주머니나 하숙집 아주머니처럼 친한 아주머니에게는 '이모'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말은 자주 들을 수는 있지만 어법에는 맞지 않는다.

▶ 나이가 비슷하나 친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부를까?



▶ '이름+씨' 라고 부른다.

▶ 직업명을 사용해서 부를 때도 있을까?



▶ 교수, 기사, 판사, 변호사 등의 직업은 '직업+님'으로 부른다.

의사는 '의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의사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 직장에서 만난 사람은 어떻게 부를까?



▶ 자신보다 높은 직급의 사람은 '직함+님'으로 부르고, 자신보다 낮거나 같은 직급의 사람은 '성+직함'으로 부른다.

06 밥 먹을 때는 코를 풀면 안 돼요



또 야근이다. 저녁을 먹고 들어와서 계속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동료들과 함께 모두 회사 구내식당으로 갔다. 오늘 저녁 메뉴는 얼큰한 김치찌개! 우리는 테이블에 앉아서 과장님이 식사를 시작하시기를 기다렸다. 한국에서는 윗사람이 먼저 수저를 든 다음에 아랫사람이 수저를 드는 것이 예의라고 한다. 과장님이 수저를 드시자 나를 비롯한 다른 동료들도 수저를 들고 밥을 먹기 시작했다. 나는 젓가락질에도 자신이 있다. 그리고 한국의 식사 예절도 잘 알고 있다. 숟가락과 젓가락을 같이 들거나 그릇을 들고 먹으면 안 된다는 것까지도 잘 알고 있다. 처음에는 젓가락질도 잘 못하던 내가 식사 예절도 잘 알게 되었다는 생각에 내심 뿌듯해졌다. 아, 그런데 김치찌개는 진짜 매워! 적응이 안 돼! 콧물이 다 나온다. 나는 휴지를 뽑아 있는 힘껏 '흥' 하고 코를 풀었다. 그러자 밥을 먹고 있던 과장님과 동료들이 모두 나를 쳐다봤다. 당황스러워하는 나에게 김 대리는 작은 목소리로 “한국에서는 밥을 먹다가 코를 풀면 안 돼.” 하고 말해줬다. 나는 조금 민망해졌다. 아이고, 내가 모르는 한국의 식사 예절이 또 있었구나.



- 야근 night duty, 残業, 夜班
- 구내식당 cafeteria, 社員食堂, 职工食堂
- 얼큰하다 hot, からの, 辣
- 예의 etiquette, 礼儀, 礼貌
- 비롯하다 including, 初めとする, 以...为首
- 뿌듯하다 feel a sense of satisfaction, 胸がいっぱいだ, 心滿意足
- 코를 풀다 blow one's nose, 鼻をかむ, 擤鼻涕
- 민망하다 embarrassed, きまり悪い, 不好意思
ほづが悪い